



# 도민 삶 팍팍... “평가 후 존폐 결정을” “전현직 지사 출석”... 증인대 설까

### 도, 의회에 ‘국제자유도시’ 평가 결과 첫 보고 근로자 평균임금 1999년 6위 → 2018년 17위로 도의회 “토건 자유도시” 비판... 재평가 요구도

1999년 전국 6위 수준이던 제주 근로자 평균임금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이후 계속 낮아지면서 2018년에는 전국 꼴찌로 추락해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등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2002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오면서 도의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 좌남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주자면)도 “2015년에 제주연구원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념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부정 44%, 긍정 15%였다”며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때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지만 불편하기만 하고, 지표상으로 삶의 질은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010년 15억원을 투입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차 계

획을 수립해놓고, 도지사가 바뀐 뒤 2015년에는 10억원을 들여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을 시행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평가 결과 긍정이 높지 않은데도 연구팀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8년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총생산은 6조원에서 18조원으로 166% 늘었지만 5인 이상 사업장 통계를 보면 제주 직장인의 월급은 1999년 전국 6

위에서 2018년에는 전국 17위로 완전히 꼴찌가 됐다”며 “국제자유도시투자계획으로 2017년, 2018년에 5조1370억원을 투자했지만 82%인 4조2388억원을 숙박시설을 만드는 데 썼다. 결국 토건자유도시였고 주민 삶을 전국 꼴찌로 만들어버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중간 평가를 해봤느냐”며 “이번 기회에 영역별로 평가해서 국제자유도시를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때려치울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앞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보고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도 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제주도로부터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회·김태환·우근민 대삼문대립 JDC 이사장도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문제 등 관련 사항 전반 심층 조사 27일 출석 요구... 성사 관심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윤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을 소환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12일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5개 사업장의 증인 심문 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45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에는 전·현직 도지사 3명과 제주도 산하 전·현직 공무원 30명, 도 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3명이 포함됐으며, 참고인으로는 JDC 이사장 등 9명과 상·하수도 관련 업체 관계자 3명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증인 심문 조사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동 계기가 된 상·하수도 문제뿐만 아니



제주도의회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도내 주요 5개 사업장의 증인 심문 조사를 위해 전현직 도지사 등 4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사진=도의회 제공

라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 행정절차 문제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도내 주요 5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7차례 회의와 1차례 현장 방문, 7차례 실무회의 및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제9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며, 증인으로서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 지사만 출석하고 전직 도지사들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신도시 분양사업?”

### JDC 추진 사업 ‘도마 위’ 정민구 의원, 수용력 우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중산간에 약 30만㎡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3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3차 회

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JDC가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출범한 JDC가 처음에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과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JDC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형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일원 30만㎡에 1단계 사업으로 총 2537억원을 투자해 거주생활·단지관리 기능을 갖춘 거점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면 도시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인가”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계획대로라면 이미 조성된 마을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고, 올해 1월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놓았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 알고 있느냐”며 “쓰레기와 하수, 자동차가 넘치는데도 JDC는 9만평 땅에 도시를 하나 만들어 분양하려는 것인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천읍 와흘리 쪽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올해 1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며 “빠르면 오는 9월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해소 탄력

### 서귀포시 사업비 377억 확보 강정·위미·상에 배수 개선

집중호우 때마다 대규모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서귀포시 강정·위미·상에지구에 대한 대규모 배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이들 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국비 절충을 벌여 상에지구는 세부설계, 강정·위미지구는 기본조사 대상지로 동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ha 이상의 농경지 침수지역에 우수 저류지, 배수로 시설 등 대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부설계 대상지로 선정된 상에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7년부터 배수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기본조사를

시작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세부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9억원을 투입해 4.51km의 배수로를 정비하게 되면 85ha에 대한 침수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강정·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강정지구 수해면적 88ha·사업비 144억원 ▷위미지구 수해면적 97ha·사업비 11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조사를 직접 시행한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지구들이 조기에 세부설계 대상지로 선정돼 2021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사업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국고절충 노력으로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 ‘카지노 조례안’ 결국 보류

카지노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논의 결과 카지노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의견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영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다”며 “카지노 규모의 적정 수준,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지역환원 확대 방안 등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표성준기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9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모집인원**  
7명(정규직 4명, 계약직 3명)

**2.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구분	직급	모집분야	주요 직무	인원	근무지
정규직	5급	경영지원	경영지원 업무(재무·회계)	1명	제주 본원
		마케팅지원	유통기획·수출지원(마케팅)	2명	제주 본원
계약직	계약직	행정지원	도외출입 운영 및 유통관리	1명	서울사무소
		유통지원	일반행정(경영지원 분야)	1명	제주 본원

※ 경력은 관련분야 상근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직급자가 없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진용원 규정에 의거 가산점 부여(해당서류 제출시에 한함)

**3. 보수규정**  
진용원 보수규정에 의거 정규직은 연봉계약, 계약직은 호봉 상정 지급

**4. 응시자격**

구분	모집분야	응시자격	
정규직	5급	경영지원	·2년 이상 회계 관련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마케팅지원	·2년 이상 직무관련 경력에 있는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계약직	행정지원	·자격요건 없음	
	유통지원	·직무관련 경력에 있는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5.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9.06.05.~2019.06.17.(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온라인 작성)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jpa.saramin.co.kr)  
※ 응시서류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요일,요일도 가능), 단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접수

###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사]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하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당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 소형 병의원에 적합한 상가 임대

시민복지타운 정부합동청사 정문 앞 코너 1층 현 편익점 CU 자리

(실평수 35평으로 7월초 입점 가능)

단독 또는 분할 매장 모두 가능 (원하시면 CU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매장 가능)

가정의학과, 내과, 치과 등 소형 병의원에 적합

(정부합동청사, 연금공단, 상공회의소, KBS, 한국은행, 산업인력공단 등 상권에 병원 없음)

건물주(010-5538-1267)가 직접 임대 가능하게 조건 맞춤 예정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